



아산장학생들과 아산재단 임원진, 내빈이 자리를 함께 했다. 뒷줄 왼쪽부터 변정일 아산재단 명예자문위원, 정정길 울산공업학원 이사장,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김태현 · 이상주 · 김유후 · 한승주 · 김명자 · 이홍구 아산재단 이사, 정몽준 이사장, 유덕중 교수, 이봉주 아산재단 이사, 장순홍 한동대 총장, 박상욱 국방부 복지정책 과장(대령), 안성기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 유지수 국민대 총장, 최종원 아산재단 감사, 김희동 한국외국어대 부총장, 이종욱 해경본부 행정운영계장(경정), 조규 혁 경찰청 복지정책계장(경정). 앞줄은 장학생 대표들이다.

“몸과 마음 건강한 아산장학생 되기를”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월 29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에 자리한 아산생명과학연구원 1층 강당에서 2016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이홍구 · 장정자 · 이상주 이사 등 아산재단 임원진과 각 대학 및 MIU(Men in Uniform, 군인 · 경찰관 · 소방관 · 해양경찰 등 제복 입은 대원) 관계자, 장학생과 학부모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 아산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과, 장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인사를 전한 뒤 “가난한 농부의 맏아들로 태어나 막노동을 하면서도 한평생 꿈을 꾸고 그 꿈에 도전하셨던 아버님은 복지라는 말이 생소하던 1977년에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고자 아산재단을 설립하셨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병원들을 세우셨다”고 아산재단의 설립이념을 들려준 뒤 2015년 아산상 의료봉사상 수상자로 축사를 할 예정인 유



인사말과 축사를 하고 있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유덕중 우간다 마케레레 의대 명예교수. 수여식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각 대학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덕중(57) 마케레레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소개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공부한 유 교수님 또한 의사가 되어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돕겠다고 자신과 약속한 뒤 1992년부터 아프리카 우간다의 마케레레 의대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봉사하고 있다”면서 “3월부터는 에티오피아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는 유 교수님의 봉사정신은 아산장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어서 선친인 아산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를 소개했다.

‘나를 선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렇다 할 학력도 없이 성공한 나로 인해 자신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큰 재산과 좋은 학벌이 있어야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하고 학벌 없이도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나를 ‘견본’으로 삼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매진해서 크게 발전하기를 바란다’라는 <이 땅에 태어나서> 362페이지를 직접 읽어준 정몽준 이사장은 “마음속에 품은 꿈도 이루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산장학생이 되기를 바란다. 아산재단은 항상 장학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힘든 사람 위로하는 아름다운 꿈

유덕중 교수는 축사에서 “학생시절에 형님이 자신의 결혼준비금으로 학비를 도와준 적이 있고, 작년에는 자녀들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요양병원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학비 때문에 힘든 학생들의 고통을 잘 안다”면서 인재를 키우는 고귀한 일을 하는 아산재단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세계를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일이 혜택을 받는 아산장학생들의 의무”라고 강조한 유 교수는 “좋은 직장을 얻는 꿈 못지않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꿈을 이루


기 위해 정진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산재단은 매년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고등학생 839명과 대학생 900명, 저개발국에서 유학 온 대학원생 10명 등 모두 1,749명에게 장학금 50억 원을 전달했다.

고등학생에는 일반고(259명)뿐 아니라 방통고 재학생(80명)이 포함돼 있고, 학원에 가기 어려운 저소득층 고등학생(500명)의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해 ‘e-learning 교육비’를 지원해 성적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생에는 ‘성적우수장학생’(336명)만이 아니라 신체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는 ‘다숨장학생’(25명)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성장하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나래장학생’(110명), 올바른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지식과 재능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장학생’(149명) 등 다른 장학재단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장학생을 선정해 이웃을 배려하는 학생들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제복입은 대원들(MIU)을 격려하기 위해 MIU 자녀(230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연변대 및 연변과기대 재학생(50명)과 과테말라와 베트남·몽골 등에서 자비로 유학 와서 국내 대학원에 다니는 외국인(10명)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한다.

아산재단은 1977년 설립된 해부터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29,500여 명에게 55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의생명 과학분야 장학금 제도를 신설해 국내의 대학원의 우수 입학예정자를 선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사말과 축사 전문은 아산재단 홈페이지 (www.asanfoundation.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